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의 경제성장 기여도 분석과 선교 전략적 함의

김 희 연*

김 태 황**

논문초록

지난 50년간 개발도상국의 빈곤 완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의 총액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공여국의 국민소득 대비 지원 총액 비중은 2000년까지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였다가 2000년 새천년 목표 설정 이후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ODA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시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거시적으로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미미하게 나타나는 것은 ODA의 지원 방식과 목표가 장단기적으로 상이하거나 수혜국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수요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즉 하위 중소득 개도국들에 대한 ODA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단기 지원의 경우 개도국 전체로서는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저소득 개도국과 하위 중소득 개도국은 모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저개발 빈곤 국가에 대한 선교사역은 공동체 내 취약 계층에 대한 돌봄을 세계화로 확장하는 것이다. ODA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수혜국의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선교사역도 현지국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 차별적인 전략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정국 대상 선교사역을 상대국 ODA와 연계함으로써 선교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최근 교회 개척이나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등 전통적인 단순 목회 활동을 확대하여 통합적인 선교활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테면 교육, 보건, 엔지니어링 분야 전문인 사역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ODA를 포함한 포괄적 원조 체계를 통해 마련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는 국제적 경제개발 지원체계와 그 효과를 분석하고 현대 선교전략의 강화와 다양화에 어떤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제어: 공적개발원조(ODA), ODA의 효과 분석, 선교전략, 통합선교

* 서울대 국제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교신저자,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부교수

2012년 01월 30일 접수, 03월 15일 최종수정, 03월 21일 게재확정

I. 서론

빈곤의 문제는 개인적 영역과 공동체적(국가적)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츄닝, 1989: 332-386). 국제적인 관심과 완화 협력의 노력은 2차 세계대전 직후 세계은행(IBRD)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설립을 통해 활성화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 ODA위원회(DAC)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의 총액 목표치를 회원국 국민소득(GNI)의 0.7%로 설정했으며 점진적인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개발금융기구들도 회원국의 빈곤 퇴치 또는 완화를 우선적인 정책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성경은 개인적 계층을 제외하고는 빈곤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보다는 실존적 빈곤의 해소방안 제시에 집중한다¹⁾.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 대한 보살핌(신 24:19-22)이나 초대교회의 헌신적인 구제행위(행 6:1-3)는 제도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복음의 실천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성경에 나타난 이웃에 대한 구제의 의미가 현대 글로벌 사회에서 국가 간 ODA 또는 지원체계를 통해서도 구현될 수 있을까? 역으로 국제적 경제개발 지원체계가 현대 선교전략의 강화와 다양화에 어떤 시사점을 제시하거나 상호 보완성을 형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인간을 전(全)인격적으로 창조하셨고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인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다스리심을 인지함으로써 모든 생존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삶(복음)으로 구원을 회복하기를 기대하신다. 기독교 세계관에 의해 복음을 총체적 삶의 실천으로 이해할 때 구제와 선교도 영적, 정신적, 물질적(일상적) 건강을 총체적으로 지향할 수 있을 것이다. “총체적 선교”의 개념은 삶의 모든 영역(경제, 정치, 교육, 비즈니스, 미디어, 문화 예술 등)에서 개인과 공동체가 복음을 전파하고 삶의 현장에서 실증해 나아가는 방향성을 지칭한다(한국인터서브, 2011)는 점에서 가속화되어가는 글로벌화 시대에 기독교 세계관의 실천적 심화를 위한 유익한 단서를 제공한다. 개인과 공동체의 일상적 삶의 질 향상이 구제와 선교의 부분적 목표로 고려한다면

1)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마 26:11).”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신 15: 4-5).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꿀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사 58:7).”

현재 민간부문에서나 공공부문에서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 활동도 규제와 선교의 포괄적 틀에서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본고는 두 가지 가설적 논지를 세우려는 시도이다. 하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양허성 ODA가 수원국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경제성장)에 기여하였을 것이며 유효한 결과가 나타난다면 지속가능하도록 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ODA의 긍정적 효과와 대상국 그룹별 차별적인 파급영향을 고려한다면 현지국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외 규제와 선교의 전략 방안을 보완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2장에서 ODA의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선행 연구를 통해 개괄적으로 고찰하고 3장에서 ODA 수원국을 저소득국과 중소득국으로 구분하여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한다. 4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응용하여 해외 규제와 선교 현장에 응용할만한 선교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ODA와 경제성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ODA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는 1969년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사회적 개발을 증진하기 위해 공적 거래와 양허적 성격으로 지원할 자금을 설정하였다. DAC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ODA)는 중앙 및 지방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 개발도상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한 자금의 흐름을 지칭하며,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자금으로써 증여율(grant element)이 25% 이상의 양허성(concessional) 재원으로 정리된다²⁾. 대상국은 DAC 수원국 목록에 있는 국가나 해당 관련된 국제기구가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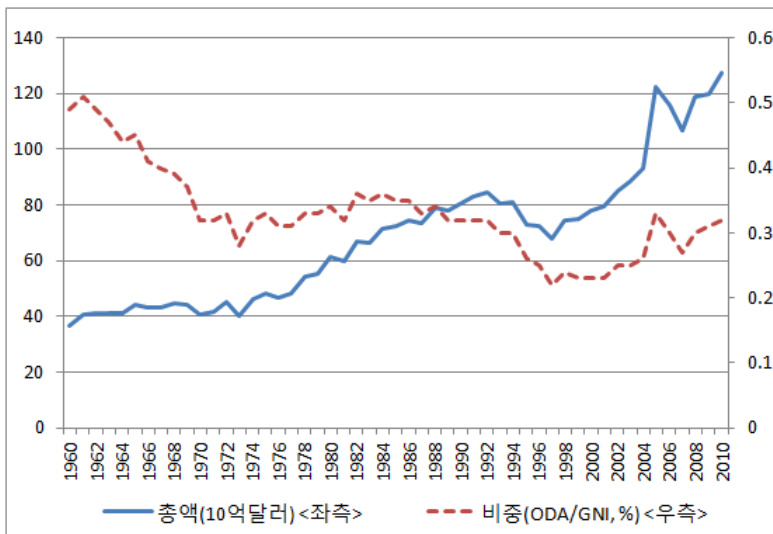
2010년 기준 23개 DAC 회원국 전체의 ODA 순 이행 총액은 1,285억 달러 규모이며, 국민소득(GNI) 대비 ODA 순 이행 총액의 단순평균 비중은 0.49% 수준으로 나타났다³⁾. 총액 기준으로 최고 공여국은 미국으로 2010년 중 303억 5,300만 달러를 원조하였으나 GNI 대비 비중은 0.21%로 19위에 머물렀다. GNI 대비 총액 비중이 높은 국

2)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DCD-DAC)

3) www.oecd.org/dac/stats

가는 주로 북유럽 국가들로서 노르웨이 1.10%, 룩셈부르크 1.05%, 스웨덴 0.97%, 덴마크 0.91%, 네덜란드 0.81%가 해당되는 반면에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는 0.12% 수준인 한국이다. 한국은 2009년에 비해 총액을 43.8% 증가시켰으나⁴⁾ 총액 규모로도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에 이어 네 번째로 작은 규모이다(<부표 1> 참조). 심지어는 DAC 비회원국인 슬로베니아(0.13%)나 터키(0.13%)의 경우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1960년 이래 OECD DAC 회원국들의 ODA 공여 총액은 1990년대 중후반과 2007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하지만 국민소득(GNI) 대비 비중은 2000년대에 이르기 전까지는 오히려 하락세를 나타냄으로써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냈다([그림1] 참조).



자료 : OECD, DAC

[그림 1] OECD의 DAC 회원국들의 ODA 총액과 국민소득(GNI) 비중 추이

개발도상국 전체에 대한 ODA 총액이 수원국의 주요 자본축적 규모를 형성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국내 자본축적 역량이 미약함으로 인해 대외 자본유입

4) 달러 경상가격 기준

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ODA는 수원국의 유효한 경제개발 재원이 된다. 특히 개발도상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정치적 불안정성을 고려하면 선진국 민간자본의 유입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공적자본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ODA 정책의 기초를 살펴보면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효과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먼저 ODA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강조하는 논지에 기반한다. 즉 일률적인 경제 성장의 결과가 개발도상국으로 순차적으로 확산되리라는 기대감과는 달리 국가 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개발도상국 국민의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ODA는 개발도상국의 역량 개발을 높여야 한다는 국제 사회의 공통적 관심사에 근거한다. 이러한 역량 개발은 개인이나 특정 기관의 개별적 능력 향상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환경 변화를 포괄한다. 셋째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과 ODA가 수원국의 경제적 사회적 개발에 지속가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성장과 사회통합 및 환경보호의 관점이 통합적으로 접목되어야 한다. 넷째 ODA는 수원국이 의사결정과 집행의 지배구조를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 제고의 제도적 기반을 요구한다.

III. ODA의 경제성장 기여도 분석

1. 거시-미시 분석간 패러독스

ODA의 효과성에 관한 학계 연구는 크게 거시적 분석과 미시적 분석으로 나뉘어 진행되어 왔다. 거시적 측면에서는 ODA가 수혜국의 경제발전에도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있어 왔고, 미시적 측면에서는 개별 프로젝트가 소기의 목적과 효과를 달성하였는지의 여부를 진단하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미시적 연구 결과는, ODA 프로젝트가 상당한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는 보고가 다수인 반면 거시적 연구 분야에서는 ODA가 수혜국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대부분의 ODA 프로젝트는 효과가 높다는 결과를 보이는데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을 하면 대체 그 실효성이 어디로 사라지는 것인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를 두고 ODA의 ‘거시-미시 분석간 패러독스 (macro-micro paradox)’라 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런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이해하고 ODA 효과를 재평가 해보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논문은 크게 세 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ODA의 효과성 평가에 대한 기존 논의 정리와 미시분석과 거시분석이 상반된 결과를 도출하는 원인 분석, 그리고 ODA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성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한다. 두 번째는 거시적 관점에서 ODA의 효과, 즉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를 국가별 소득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그 차이를 진단하고 FDI와 ODA의 차이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선교와 선교지 사역에 관한 자료가 부족한 현실에서, 공적 ODA의 패턴과 효과성 분석을 통해 선교 전략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의한 시사점과 전략적 방향성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선행 연구와 쟁점

경제 발전에 있어 ODA의 효과성에 대한 초기 단계 연구는,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인 국내 축적 자본의 한 요소로서 ODA를 성장에 대해 간접적으로 분석한 도마(Domar, 1946)나 로스토우(Rostow, 1956)의 연구가 있다. 직접적인 ODA 효과를 성장 모델로 분석한 연구는 파나넥(Papanek, 1972)이 최초였으며, 이어 굴라티(Gulati, 1978), 다운링과 히먼즈(Dowling and Hiemenz, 1983), 모슬레이(Mosley, 1980) 등의 학자들이 성장모델에서 ODA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엇갈린 논의들이 최근까지 이루어 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곱타 및 이슬람(Gupta and Islam, 1983), 레비(Levy, 1988) 등이 ODA가 성장에 긍정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한다는 주장을 한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썩(Singh, 1985), 모슬레이 외(Mosley et al., 1987) 그리고 분느(Boone, 1994, 1996) 등이 성장모델에서 ODA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ODA의 효과는 표본의 기간과 표본대상국 수, 통제 변수 등을 다르게 할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며 상반된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그동안 ODA 효과성에 대한 결론이 학자마다 다르게 도출되었다. 이런 논란의 가운데, 2000년도에 발표한 번사이드와 달러(Burnside and Dollar, 2000)는 ODA 효과성이 조건부(conditional), 즉 수원국의 제도수준(institutional quality)에 따라 ODA의 효과성이 갈린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연구결과로 학계 뿐 아니라 정책분야에서도 큰 반향이 일어났고, 다자기구들과 공여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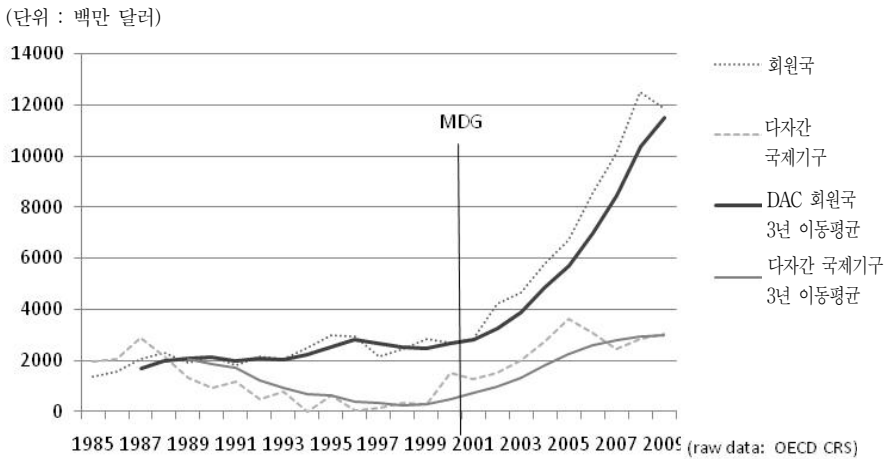
들이 ODA를 좀 더 선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기존 입지에 힘을 실어 주게 되었다. 물론 오늘날까지도 ODA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2000년 이후에 정교한 통계기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논문들에서는 대체적으로 ODA의 효과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주류를 이룬다. 또한 한센과 타프(Hansen and Tarp, 2000, 2001), 렌싱크와 화이트(Lensink and White, 2001), 달가드 외(Dalgaard et al., 2004), 클레멘스 외(Clemens et al., 2004) 등의 학자들은, 표본기간을 늘려서 분석하면 ODA가 성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제도수준에는 번사이드와 달러(Burnside and Dollar)가 주장한 것과는 달리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3. 패러독스의 진단과 ODA 효과의 세분화

경제성장에 미치는 ODA 효과에 관한 연구는 데이터분량과 관측 개체 수, 분석기간, 분석방법 등에 따라 결과가 민감하게 엇갈린다. 첫 번째 원인은, 클레멘스 외(Clemens et al., 2004)이 지적한 바와 같이 ODA 총액 안에는 경제 분야에 들어가는 ODA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투입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반에 걸친 발전이 이런 요소들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지만 이런 장기적 효과까지 포함한 ODA 효과분석을 장기성장모델에서는 분석해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반면에 단기성장모델에서 ODA의 효과성을 포함하면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효과성을 잃어 버리게 된다. 클레멘스 외(Clemens et al., 2004) 이전의 연구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간과한 채 분석하였기 때문에 통계적 기법이나 표본 성격에 따라 결론이 상의하게 나타났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성장모델에서 ODA효과성 분석 시 나타날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장기성장모델에는 통계적 잡음을 일으키는 변수가 다수 작용한다. 둘째, 장기성장모델에서는 ODA 외에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ODA 효과성이 다른 변수에 묻혀 버릴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장기 성장모델 보다는 단기(4~5년) 성장 모델을 분석하는 것이 직접적인 효과를 보기에 좀 더 유리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ODA 요소들이 효과성을 나타내는 기간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10년, 20년, 30년으로 성장 모델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분석 방법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성격을 지닌 ODA의 효과를 걸러내지도 못할 뿐 아니라 장기에 있어 성장에 미치는 잡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ODA의 경제성장효과를 제대로 분석한 방법이라 볼 수 없다. 셋째, 단기성장모델을 분석하여도 ODA내에 효과가 기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때로는 성장과 음의 관계에 있는 긴급구호 또는 인도주의적 원조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회귀분석 결과를 교란시킬 수 있다. 따라서 ODA총액으로 분석하는 경우 ODA 내부의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그 안에서 ODA의 효과를 자체적으로 상쇄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넷째, ODA가 대체성(fungibility)이 있기 때문에 결과를 교란시키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Pack and Pack, 1993; Feyzioglu et al., 1998). ODA가 한 분야에 들어갈 목적으로 공여 되었다 하더라도, 수원국에서 집행할 시 일부 다른 분야로 전환되거나 지연이 되어 다른 분야에 투입되는 경우가 실제로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통계 분석 결과를 모호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가 발표되고 난 이후, 인도주의적 ODA가 급격히 증가한 점이다([그림2] 참조). 물론 경제 분야로 투입되는 ODA 비중이 여전히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보건이나 인도주의적 ODA가 증가함에 따라 성장모델에서 ODA 총액으로 분석하는 방법은 의미를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료 : OECD, DAC

[그림2] 보건분야 개발 ODA 추이와 새천년개발목표(MDG)

따라서 ODA의 경제성장효과를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해 내려면, 경제성장에 단기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만한 ODA 요소들을 추출하여, 해당 기간의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클레멘스 외(Clemens et al., 2004)의 분류는 현재까지 나온 ODA의 효과성 평가 논문 중에서 ODA의 경제성장효과를 비교적 명확하게 분석해 낸 논문이라 할 수 있겠다. 다만 클레멘스 외(Clemens et al., 2004)에서 분석한 방법은 단기 경제성장 효과를 지닌 ODA를 단기 성장률에 대해 직접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ODA 총액 대비 단기 경제성장 효과를 지닌 ODA 구성요소의 비율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방법은 다소 문제가 있는데 그 이유는, 총 ODA 금액에서 해당 ODA 요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해석은, ODA 총액에 큰 변화가 없을 때에는 상관없지만, ODA 총액에 급격한 감소가 있거나 긴급구호나 인도주의적 ODA 등으로 인한 수혜국에서의 급격한 총액 증가가 있었다면 상대적 비율이 변화함으로 인해 해당 ODA의 효과성 평가와 해석에 큰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논문에서 직관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단기경제성장효과를 지닌 ODA 요소 (이후 단기성 ODA)만을 추출하여 합산한 금액을 관심변수로 사용하였다.

4. 자료와 방법론

본 연구는 먼저 기본 경제성장모델에 단기성장 ODA를 관심변수로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초기 년도 일인당 GDP, 인플레이션, GDP 대비 투자율, GDP 대비 무역비율, 저축률 등을 사용하였고, 추가로 제도 수준(institutional quality)의 부패방지 지수(corruption control index)를 사용하였다. 각 거시경제지표의 출처는 World Bank Development Indicator이며, 제도수준지수의 출처는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이다. 관심 변수인 ODA 금액은 OECD CRS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표본 데이터 기간은 1980년도에서 2009년이며, 분석단위는 5개년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ODA 변수는 먼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ODA 순수해 총액과 일인당 ODA 금액에 대한 계수를 제시하고, 클레멘스 외(Clemens et al., 2004)의 분류에 따른 단기성 ODA⁵⁾를 관심 변수로 지정하여 회귀 분석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단기성 ODA는 CRS 데이터에서 다섯

5) 결과도표에서는 ODA Short-term의 약자로 ODAst 로 표기

자리 목적 코드(purpose code, 5 digit level)로 추출해 내었다. 분류기준은 클레멘스 외(Clemens et al., 2004)의 기준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차용하였다. 즉, 이 논문에서 분석한 ODAst는 전체 ODA에서, 성장과 음의 관계에 있을 법한 긴급구조, 인도주의적 지원금과, 양의 관계를 가지되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교육 관련, 행정비용 등을 제외하며 나머지 중에서 단기적 경제성장효과를 지닐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목적 코드로만 분류해낸 ODA 금액을 합산하였다. 교육 분야 뿐 아니라, 같은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해당 섹터 별 인사교육 및 행정비용 등은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ODAst 구성요소에서 또한 제외하였다. ODA는 실지금액(disbursement)이 더 정확한 계수치를 산정해 낼 수 있겠지만, 기존 논문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실지금액과 상관관계가 높은 지불작정금액(commitment)을 사용하였다. 이는 실지금액 자료는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수집되기 시작하여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분석기간을 다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계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표본 국가 별로 균형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통계분석에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 모든 변수는 초기년도 일인당 GDP를 제외하고 5개년 평균을 취하였고, 일인당 GDP와 초기년도 GDP는 로그를 취하였다.⁶⁾ 회귀 방정식 모델은 다음과 같다.

$$Y = \alpha + \beta_0 ODA_t + \beta_1 \text{Log}(GDP_t) + \beta_2 \pi_t + \beta_3 \text{trade}_t + \beta_4 \text{controls}_t + \epsilon_t$$

ODA는 상관계수의 부호와 값이 일관성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검토하였는데, 순 ODA, 일인당 ODA를 벤치마킹하고, 단기성 ODA를 관심변수로 회귀분석하였다. 또한 ODA의 체감효과, 즉 ODA가 증가할수록 성장에 미치는 한계효용성이 떨어지는 지를 보기 위해 ODA 이차항 함수도 함께 분석해 본 결과를 회귀분석 결과 표에 명시하였다. 기본 변수는 GDP는 해당 기수 초기년도 GDP, π 는 인플레이션, inv t는 GDP대비 투자율, trade 는 GDP 대비 무역량을 사용하였고 GDPpc 추가하여 모델의 일관성을 시험해 보았다. 기타 통제변수로는 controls로 분류된 저축률, FDI 수혜, 제도지수 등을 추가 변수로 사용하였다. 아래첨자 t는 해당기수를 나타낸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표본 집단을 저소득국(low income), 중소득국(middle income),

6) 초기년도 GDP와 일인당 GDP에는 상관계수 비교와 해석상의 편리를 위해 통상적으로 로그함수를 취한다. 다른 변수들은 GDP 대비 비율로 환산하여 일관성 있는 해석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중소득국을 다시 하위중소득국(lower-middle income), 상위중소득국(upper middle-income)으로 나누어 각각의 하위 표본집단에서의 원조 효과성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5. 회귀분석 결과

주요 회귀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 성장모델의 회귀분석 결과

Table 1. Benchmark growth model											
Dependent variable: Growth rate 5 years average											
	1	2	3	4	5	6	7	8	9	10	11
ODA		0.0012*** (-3.9693)	0.0012*** (3.8836)	0.0022*** (3.5442)							
ODApC					0.0064** (2.4472)	0.0135* (1.9458)					
ODAsT							0.0015*** (-2.8615)	0.0030** (2.4803)	0.0029** (2.3728)	0.0031** (2.5046)	0.0028** (2.2995)
(ODA) ²				-0.0039* (-1.8721)							
(ODApC) ²						-2.50E-5 (-1.2628)					
(ODAsT) ²								-9.70E-7 (-1.3912)	-9.44E-7 (-1.3525)	-1.04E-6 (-1.5084)	-9.80E-7 (-1.4200)
log(GDPpC)					0.6434*** (6.4597)	0.6615*** (5.6798)					
Log(GDP)	-0.4903*** (-6.1871)	-0.3918*** (-3.0307)	-0.4635*** (-3.0585)	-0.4068** (-2.6370)	-1.0135*** (-6.9728)	-1.1288*** (-6.7469)	-0.5197*** (-3.9697)	-0.4853*** (-3.6451)	-0.6045*** (-3.8386)	-0.5698*** (-3.5097)	-0.6387*** (-3.7871)
Inflation	-0.0049*** (-10.3516)	-0.0041*** (-7.5171)	-0.0040*** (-7.3600)	-0.0040*** (-7.3220)	-0.0045*** (-8.4785)	-0.0041*** (-7.6430)	-0.0040*** (-7.4287)	-0.0040*** (-7.4254)	-0.0039*** (-7.2155)	-0.0036*** (-6.7085)	-0.0034*** (-6.4015)
Investment	0.1388*** (9.3700)	0.1482*** (-8.8459)	0.1472*** (8.7386)	0.1465*** (8.7123)	0.1395*** (8.2799)	0.1395*** (8.2731)	0.1644*** (9.4531)	0.1631*** (9.3692)	0.1624*** (9.3150)	0.1512*** (8.4859)	0.1356*** (6.6602)
Trade	0.0058** (2.2051)	0.0093** (2.44)	0.0086** (2.2435)	0.0102*** (2.5866)	0.0199*** (4.6847)	0.0171*** (3.9817)	0.0092** (2.3098)	0.0100** (2.4886)	0.0089** (2.1802)	0.0096** (2.2892)	0.0099** (2.3448)
IQ_cc			0.2465 (0.9328)	0.2256 (0.8544)		0.4998 (1.8980)			0.3868 (1.4344)	0.3257 (1.1847)	0.3258 (1.1827)
Inward FDI										3.07E-11 (1.4293)	2.53E-11 (1.1648)
Savings											0.026 (1.5957)
Period Fixed	yes	yes	yes	yes	no	yes	yes	yes	yes	yes	yes
Obs.	871	664	661	661	664	661	620	620	618	582	577
R ²	0.25	0.24	0.27	0.27	0.27	0.29	0.30	0.30	0.30	0.29	0.30

주1) 종속변수인 경제성장률은 5년 평균치

주2) *는 10% 유의수준, **는 5% 유의수준, ***는 1% 유의수준, ()안은 t값. ODA: 순ODA실적, ODApC: 1인당 순ODA실적, ODAsT: 단기성 순ODA실적, GDPpC: 1인당 GDP, GDP: 초기년도 GDP, inflation: 인플레이션, Investment: GDP대비 투자비율, Trade: GDP대비 무역비율, IQ_cc: 제도적 수준(부패통제지수), Inward FDI: GDP 대비 FDI유입비율, Savings: GDP대비 저축률

<표1>에서 1번 모형은 가장 기초적인 성장 모델을 회귀분석한 것으로 초기 년도

GDP 수준이 낮을수록, 인플레이션이 낮을수록, 투자율이 높을수록, 무역의존도가 높을수록 성장률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성장에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모두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기간에 대한 쇼크나 변화로 인한 영향력을 걸러내기 위해서 기간 고정 효과(period fixed effect)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관심 변수인 ODA 변수들을 살펴보면 전부 1~5% 수준에서 유의하고 상관 계수 부호도 양으로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즉 ODA를 많이 제공받을수록 수혜국의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해석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상관 계수치가 낮은 편이라, 다른 성장요소들과 비교하여 큰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변 회귀분석 결과를 예로 들면 ODA 총액이 백만 달러 증가할 경우 성장률은 약 0.22% 포인트 증가한다. 반면, 단기성 ODA로 분석한 경우 상관계수가 순ODA로 분석할 때보다 상관계수가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11변 모형의 결과에 따르면 단기성 ODA 수혜 백만달러 증액시 성장률은 0.28% 포인트 증가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계체감효과를 고찰하기 위한 ODA 이차항의 경우 음의 부호가 나온 것으로 보아 체감효과가 있을 것이라 추정 가능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는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몇 가지 통제 변수의 추가는 성장모델의 회귀 분석 결과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았다. 제도수준을 통제 변수로 썼을 때 단기성 ODA의 효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제도변수 자체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래 성장 모델에서는 FDI의 수혜가 성장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오나 ODA수혜국을 분석하는 경우 11변에서 알 수 있듯이 FDI가 성장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다음과 같이 해석 가능하다. 먼저, ODA 수혜국은 대부분 저소득, 저개발국 또는 중진국이기 때문에 FDI가 들어갈 만한 경제적 수준에 미달했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FDI 자체가 거의 안 들어 갔다면 그 효과도 분석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또는, FDI가 유입되었더라도 ODA 수혜국이라면 FDI 자체보다도 인프라 구축이나 무역관련 ODA와 같은 요소들의 성장에 대한 효과가 좀 더 확실하게 보여질 가능성이 더 많다.

상술한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인과관계의 문제이다. 최근 계량 분석학계의 최대 관심사는 인과관계 분석과 증명이다. 통계 자료나 분석으로 도출된, 특히 회귀분석의 결과만을 가지고는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증명해 낼 수는 없다. 단지 직관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을 법한 변수들을 분석해 내었을 때 인과관계가 성립하면 회귀분석 상관계수가 유의하고 높게 나와야 한다는 전제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의 결과만을 가지고는 ODA가 많이 들어간 나라가 성장률이 높아진 것인지, 성

장률이 높은 나라에 ODA를 많이 공여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단계로 소득 수준이 비슷한 국가군을 구분하여 그 군 안에서의 ODA 효과를 비교해 보기로 하였다. 회귀 분석 자체로는 인과관계 증명을 해내진 못하지만, 소득 수준이 비슷한 국가, 따라서 경제성장률도 크게 다르지 않은 국가 군내에서 ODA의 효과를 짚어 낼 수 있으면 이는 인과관계를 다소 뒷받침 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소득 수준별로 수원국을 분류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2>와 같다.

<표2> 소득군별 ODA의 경제성장 기여도 분석 결과

Table 2. Aid effects in different income groups										
Dependent variable: Growth rate 5 years average										
	all recipient	lower income	middle income	lower-mid income	upper-mid income	all recipient	Lower income	middle income	lower-mid income	upper-mid income
ODA	0.0021*** (3.3859)	0.0033*** (2.8735)	0.0020*** (2.7018)	0.0012 (1.5332)	0.0043*** (2.7030)					
ODAst						0.0028** (2.2995)	0.0087 (1.6215)	0.0023* (1.6960)	0.0021 (1.4093)	0.0049* (1.6610)
(ODA) ²	-3.93E-10* (-1.9307)	-5.05E-10 (-1.5038)	-4.61E-10** (-2.0005)	-2.40E-10 (-1.0198)	-1.60E-9* (-2.2350)					
(ODAst) ²						-9.80E-7 (-1.4200)	-7.07E-6 (-1.2305)	-8.20E-7 (-1.1886)	-6.21E-7 (-0.8531)	-2.80E-6* (-1.6936)
Log(GDP)	-0.4940*** (-3.0481)	-0.9675 (-1.3879)	-0.9298*** (-3.8555)	-0.7845* (-1.9540)	-2.5238*** (-5.7189)	-0.6387*** (-3.7871)	-1.0926 (-1.5015)	-0.9534*** (-3.8234)	-0.5460 (-1.3378)	-2.5983*** (-5.6031)
Inflation	-0.0039*** (-7.0156)	-0.0110*** (-5.1952)	-0.0030*** (-5.8033)	-0.0027*** (-4.8463)	-0.0045*** (-4.2293)	-0.0034*** (-6.4015)	-0.0110*** (-4.9420)	-0.0029*** (-5.6147)	-0.0028*** (-5.1610)	-0.0030*** (-2.7459)
Investment	0.1306*** (6.9768)	0.0623 (1.2025)	0.0322 (1.4566)	0.0325 (1.2366)	0.0315 (0.8536)	0.1356*** (6.6602)	0.0655 (1.1905)	0.0371 (1.5313)	0.0252 (0.9416)	0.0569 (1.1293)
Trade	0.0106*** (2.6895)	0.0220** (2.0538)	0.0065 (1.5067)	0.0003 (0.0534)	0.0114* (1.8649)	0.0099** (2.2344)	0.0161 (1.4422)	0.0063 (1.4120)	0.0007 (0.1243)	0.098 (1.4385)
IQ _{cc}	0.2440 (0.9213)	0.3512 (0.5625)	0.8381*** (2.6900)	0.2747 (0.5553)	1.1334*** (2.7253)	0.3258 (1.1821)	0.4624 (0.7076)	0.8385** (2.5147)	-0.0630 (-0.1197)	1.3288*** (2.8855)
Inward FDI						2.53E-11 (1.1648)	3.61E-9 (1.4877)	3.71E-11* (1.8293)	1.03E-10 (0.9951)	2.84E-11 (1.2601)
Savings	0.0296 (1.8667)	0.0175 (0.3679)	0.0891*** (4.9770)	0.0578** (2.5445)	0.0983*** (3.5487)	0.0296 (1.5957)	0.0303 (0.6195)	0.0554*** (2.8278)	0.0432* (1.8598)	0.0485 (1.4163)
Period Fixed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Obs.	655	141	432	215	217	577	135	382	202	180
R ²	0.28	0.46	0.29	0.30	0.40	0.30	0.45	0.27	0.30	0.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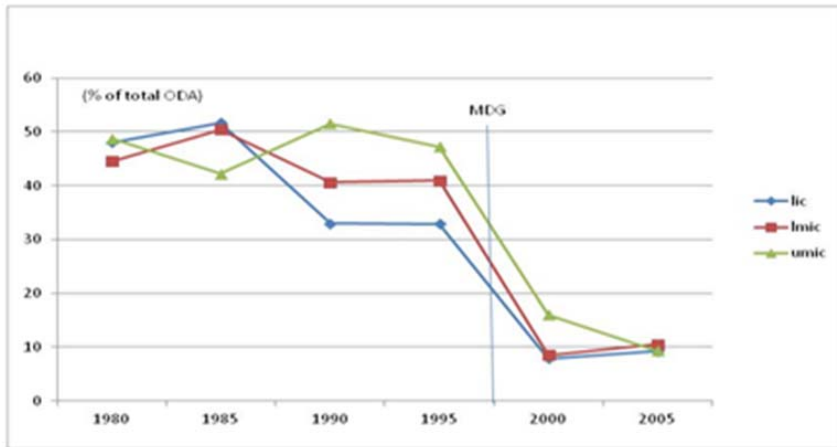
주1) 종속변수인 경제성장률은 5년 평균치

주2) *는 10% 유의수준, **는 5% 유의수준, ***는 1% 유의수준. ()안은 t값. ODA: 순 ODA 이행실적, ODApc: 순 ODA의 1인당 이행실적, ODAst: 단기 순 ODA 이행실적, GDPpc: 1인당 GDP, IQ_{cc}: 제도적 수준(부패 통제)

소득국가별 분류는 세계은행의 분류를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저소득국가

(low income)는 일인당 GNI 1,005 달러 미만, 하위중소득국가(low-middle income)는 1,006달러 이상 3,975달러 미만, 상위 중소득국가(upper-middle income)는 3,976달러 이상 12,276달러 미만, 중소득국가(middle income)은 이 둘을 합한 군으로 분류하였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대부분의 기본 및 통제변수를 포함하는 모델로 총 ODA와 단기성 ODA의 효과를 소득국가군 별로 분석해 보았다. 벤치마킹으로 분석한 모든 수원국을 표본으로 한 군에서는 ODA 총액과 단기성 ODA 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소득군별로 ODA 효과를 살펴보면 유일하게 하위 중소득국가에서만 ODA 성장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저소득국과 상위 중소득국가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난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 극빈국, 저소득국가에서는 생존의 문제, 의식주 문제와 빈곤퇴치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개발에 있어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자본이든 사회발전으로 인한 경제성장효과가 다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둘째, 하위중소득국가군은 기본적인 사회필요는 일부 해소되었으며, 따라서 비경제분야에 제공되는 원조의 규모가 줄어들고 경제분야 지원 ODA가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하위중소득국가의 경제적인 인프라나 사회기반시설이 아직 갖추어 지지 않은 단계이기에 원조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나타나지 못하는 단계일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단기성 ODA의 회귀분석결과를 통해 더 명확히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단기성 ODA는 저소득국, 중소득국 군 내에서도 하위 중소득국 두 군에서 ODA의 효과성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상위중소득국에서만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결과는 다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단기성 ODA는 앞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주로 개발도상국 쪽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 국가와 중진국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인도주의적 ODA나 보건 의료 분야 ODA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상관계수의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미약하지만 FDI의 상관계수가 중진국 전체를 비교하였을 경우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다. 둘째, 1980~1990년대 까지만 해도 ODA 총액에서 단기적 효과를 지닌 ODA의 비율이 50~60% 정도 수준이었지만 2000년 MDG 발표 이후 전체 대비 비율(5~7%) 뿐 아니라 단기적 ODA의 총액 자체도 급격히 줄어들었다([그림 3] 참조). 공여국들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도주의적 ODA(보건, 의료, 교육)와 무상ODA를 강조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공여국들이 해당 분야 ODA를 대폭 증가시키고 있고 이들 중 대부분은 저소득국가와 중진국에 집

증되는 것으로 보인다. ODA 내 구성요소의 비율이 전환되면서 경제 관련 ODA, 단기적 효과를 지닌 ODA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한 몇몇 국가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주 : MDG: 새천년목표, lic: 저소득 국가, lmic: 중저소득 국가, umic: 중상위소득 국가

[그림3] 단기 ODA의 배분별 추이

IV. 선교 전략적 함의

1. ODA의 선교학적 고찰

루즈베타(Luzbetak, 1995: 13-14)에 의하면, 선교학은 교회의 확장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구원 활동에 초점을 둔 전통적인 의미를 확장하여 신학과 일반 학문의 경계를 넘어 통합적이고 다학제간(multidisciplinary) 접근으로 강조되고 있다. “유념해야 할 점은 인류학과 마찬가지로 선교학이 여러 분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분야들의 네트워크라는 점이다 (Luzbetak, 1995: 14).”(강조는 원문)

‘통합선교’의 개념은 선교 활동의 의미와 과정을 확장시키는데 유효하다. ‘통합선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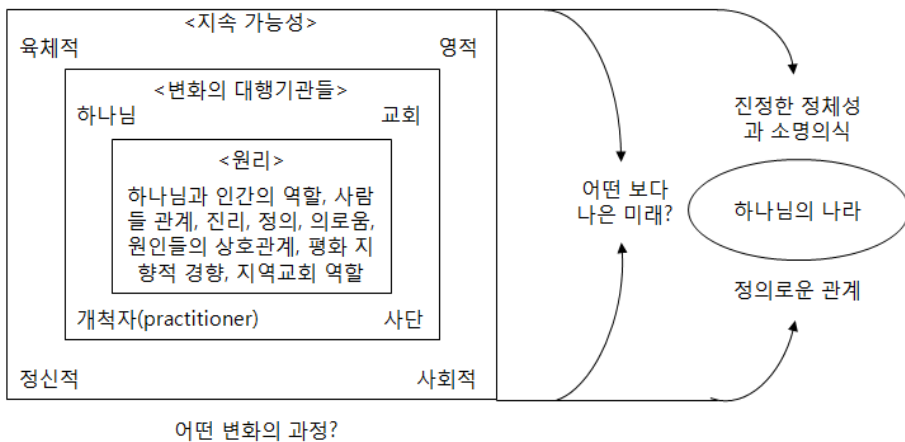
는 전도, 성경 공부, 제자훈련, 교회 개척 등 전통적인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현지인의 생존과 인간적 복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시킴으로써 선교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한다(김영걸, 2007). 이러한 조건들을 전통적인 선교 사역의 소모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사역들이 진리 증거의 다른 한 창구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성경공부나 제자 훈련과 다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주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사역 과정과 내용을 성경적 진리로 통합해야 하는 것이다”(김영걸, 2007: 14). 이러한 맥락에서 ‘통합선교’의 관점은 선교 주체로서 외부 선교사가 아니라 현지 구성원의 역할에 초점을 두면서 구성원의 인식 전환과 실질적인 능력 배양을 강조한다.

사례를 살펴보면, 해외 선교 사역은 다양한 여건에서 다양한 전략적 선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O교회의 경우 1985년 창립 이후 2011년 현재 62개국에 716명의 장단기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상태이며 26년간 누계로는 1,302명에 이른다. 이 교회는 ① 총체적 선교(복음과 삶, 연합선교, 지역개발, 정부와 긴밀한 협조), ②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 한국형 선교(남반구 저비용 선교 모델 수립, 한류 활용 문화 선교, 종합선물 세트형 선교), ③ 전문인 선교와 선교의 전문화(전문인 선교 훈련, 비즈니스 선교와 과학기술 선교), ④ 신유목형 선교(다문화 가정 선교, 현지인 중심 선교), ⑤ 종말론적 선교 등 선교 5대 집중 전략을 수립하여 현대 선교 환경의 주요 이슈와 부합시켜 추진하고 있다(O교회 내부 문서, 2011). 이러한 전략 체계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현지인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자 하는 현장 밀착적인 다양성과 실효성의 제고 노력이다. 저소득 개발도상국의 경우 가장 시급한 현실적인 문제는 빈곤 퇴치 또는 완화라는 점에서 선교사역이 현지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발전과 연계되는 것은 당연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판단한다.⁷⁾

빈곤 퇴치를 사회 발전의 방향으로 전제할 때, 마이어스(Myers, 1999)는 기존의 논의들, 즉 복음주의에 정의로운 사회체제와 기회의 제공을 포함시킨 복음주의적 발전 사상, 사람 중심의 발전 사역, 사회 구성원과 가족의 사회적 능력의 확대를 통한 대안적 발전 모형, 도의적인 복지체제의 확충,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존재로서의 기독교적

7) 아시아개발은행(ADB)을 비롯한 지역금융기구들(아프리카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등)뿐만 아니라 국제연합(UN),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등 다자간 국제기구들의 주요 운영 목적들 가운데 “빈곤 완화”는 핵심 사안인 점이 현실적 중요도를 방증한다.

정체성 회복을 통한 발전 과정 등을 고찰하고 한계점을 지적하면서(1999: 155-183), 하나님과 타인과 공동체와 환경에 대한 개인 자신의 변화된 관계들을 제시하였다. 마이어스는 인간(사회)의 보다 발전된 미래를 창출해 나아가기 위한 발전 사역은 통합적인 기독교적 변화의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하나님과 인간의 역할을 인정하고, 빈곤한 사람과 더불어 공동 사역, 정체성과 소명의 회복, 사단의 적대적 운동에 대한 인지, 진리 추구하고 정의 촉진, 빈곤의 대내외적 원인들의 상호관계 파악, 개발ODA의 역선택과 빈곤의 악순환 경계, 평화 지향적인 경향, 지역교회의 역할 인정 등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999: 200-211). 저개발 빈곤 국가에 대한 선교사역과 관련하여 마이어스는 [그림 4]와 같은 기독교적 변화와 발전 체계를 제시하였다. 정체성과 소명의식이 분명하고 환경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상술한 발전 원리에 근거하여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지속 가능성을 통해 실현된다는 것이다.



주 : 원문에서 일부 번역 용어를 수정 보완 및 추가함

출처 : Myers (1999), *Walking with the Poor: Principles and Practices of Transformational Development*. 장훈태 역 (2000). 『가난한 자와 함께 하는 선교: 변화발전의 원리와 실제』.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24쪽.

[그림4] 변화의 체계

2. 선교 전략적 과제

통상적으로 전략은 특정 조직이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복수의 수단들 가운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유효한 전략을 시행하려면 목적 추구의 본질과 추진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와그너(Wagner, 1971: 16-17)는 선교 전략의 세 가지 본질적 특성으로 성경 중심성, 효율성 및 적절성을 명시했다.

한국선교연구원(문상철, 2008)에 따르면, 한국 기독교의 선교 활동은 1979년 93명의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한 수준에서 2006년 말 현재 14,905명을 파송할 정도로 급성장해 왔으며, 대상 지역도 같은 기간 동안 26개국에서 168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선교 활동은 교회 개척(39.1%)과 제자훈련(21.5%)에 집중되었다.⁸⁾ 이러한 양적인 성장세는 한국 교회가 급성장함에 따른 선교 인력풀의 확충이 주효했다. 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선교 전략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파송 선교사 수의 증가도 필요하지만 선교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반적인 체제의 개선이 보다 중요하다. 선교 활동 경험과 정보의 체계화와 공유, 선교사의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심리적, 영적 후원 기반의 확충, 재훈련과 교육 및 연구개발의 기회 확대 등의 과제도 포함된다(문상철, 2008: 9-11).

와그너의 개념을 따르면, 한국 선교 활동은 성경 중심적 특성은 충분히 발휘하고 있으나 효율성과 적절성의 측면에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안을 체계화하기 위한 전략적 고민과 선택이 필요하다. 관건은 글로벌 선교 여건의 변화에 부합하면서 기존 선교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선교 패러다임을 어떻게 정립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ODA 중심의 ODA방식을 선교 전략적 관점으로 연계시키면 두 가지 과제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ODA가 개발도상국의 빈곤 완화와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해 왔다면 ‘통합선교’의 개념과 상통하는 광의의 선교 사역에서 응용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을 도출할 수 있을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ODA는 비상업적 공적 ODA이고 수혜국의 입장에서 ODA의 직접적인 효과 분석이 가능하므로 유사한 목적

8) 기타 교육사업(9.2%), 신학 교육(5.0%), 순회 전도(4.4%), 사회사업(4.3%), 지역 개발(4.0%), 의료사업(3.5%), 비즈니스(3.4%), 성경 번역(2.9%) 등의 순서로 선교사들의 주요 종사 업무가 조사되었다.

의 선교 활동 효과를 증대시키는 데에 대한 응용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선교 사역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가능하다면 합목적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 것인가?

3. ODA의 선교 전략적 시사점

와그너(Wagner, 1971: 31)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현지의 필요(need)에 따라서만 선교 전략이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테면 현지의 필요가 반기독교적이거나 일시적 대증요법이 된다면 선교 활동 자체가 성경 중심성의 원리에 배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ODA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역선택의 함정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ODA가 반복적이고 선별적이므로 정보의 비대칭성은 완화될 수 있다. ODA의 경제성장 기여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차용하면, 개발도상국 대상 선교 활동에 몇 가지 유의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ODA가 직간접적으로 수원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와 같이 현지국의 사회 경제적 환경(인프라)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적인 선교 사역도 경제적 빈곤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유대민족 공동체 내 취약계층(고아, 과부, 나그네)을 공동체 원리에 따라 돌보는 것을 세계화로 확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통합적으로 선교하는 여건이 가능한 지역이라면 삶의 질 향상과 인간 복지 증진의 노력을 병행하는 선교 전략이 현지 적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교 사역에 대한 포괄적이고 광의의 의미를 인식하고 접목하는 대응책이 필요하다.

둘째, ODA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수원국의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된 바와 같이 선교 현장에서도 현지인의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라 상이한 전략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는 선교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론의 문제이므로 선교 대상국을 소득 수준별로 분류하여 상이한 방식의 선교 사역이 유효할 것이다. 이를테면 표준화된 선교 사역 모형보다는 맞춤형 모형이 효율성과 적절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특정국 대상 선교 사역을 해당국 ODA와 연계함으로써 선교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19세기와 20세기의 제국주의적 팽창에 편승한 선교 활동과는 달리 현대적 ODA는 양허성 ODA이므로 돌봄(구제)과 나눔의 정신이 배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교 사역이 ODA 이행 체계를 활용함으로써 현지인 접근성을 높이고 통합적 선교 방향을 효과적으로 시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문 분야 선교사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설계 엔지니어링 전문 사역자가 ODA 수원국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적절한 선교 전략을 시현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ODA는 수원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DA 세부 내역 가운데 인도주의적인 ODA를 제외하고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ODA 구성요소로만 분석하였을 경우에는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 개발도상국가와 중소득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ODA의 경제성장 기여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나타나는 것은 보다 정밀한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결과이지만, 달리 생각하면 선교 대상국들을 소득 수준별로 구분함으로써 차등적인 선교 전략 방향을 수립하는 데에 유효한 기초적 근거로 이해할 수도 있다. 공여국들의 기존 ODA 공여 방식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ODA를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작용하였고, 이는 어쩌면 당연한 흐름으로 수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2000년도 들어서면서 인도주의적 ODA 또는 무상ODA가 국제사회에서 강조되면서 공여국의 ODA 방식이 바뀌게 되었고, 이러한 추세를 타고 인력의 이동도 활발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선교에 긍정적 여건이 조성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선교사들의 상당수가 최근에는 교회 개척이나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등 전통적인 단순 목회 활동을 넘어서는 통합적인 선교를 추구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교육, 보건, 복지, 엔지니어링 분야 전문인 선교사, 사역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이 ODA를 포함한 포괄적 ODA 체계를 통해서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복음주의적 선교가 매우 중요하고 선교의 본질을 희석시킬 수 있는 부가 활동이 장려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생존과 최소한의 인간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교육, 보건, 건강, 복지 등의 분야에 대한 ODA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현지인을 변화시키고 현지인으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현지 사회 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역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음주의적

선교와 통합적 선교는 배타적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역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선교와 구제 사역간의 전략적 관계를 좀 더 사료와 현지 조사 자료를 수집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에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앞으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며 향후 후속 연구 주제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권율 (1999). 『OECD/DAC의 공적개발ODA 논의와 동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권율 외 (2006). 『우리나라 대외ODA정책의 선진화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영걸 (2007). 『성경적 통합론의 개요 및 통합선교 적용사례』. 『설악포럼』. 통합선교연구소 자료실.
- 김태황 (2008). “국제무역, 해외직접투자 및 국제이주 추이 고찰과 선교 전략 방향 탐색.” 『신앙과 학문』. 기독교학문연구회. 13(3). 80-108.
- 문상철 (2008). 『한국 기독교 선교운동의 동향과 과제』. 한국선교연구원 자료실.
- 이훈기 외 (2010). 『ASEAN 국가 교통인프라 수준 진단을 통한 효과적 ODA 사업 추진방향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마태 (2008). 『세계 선교의 흐름과 한국 교회의 역할』. 한국인터넷서브 자료실.
- 쉰닝, 리처드 C. 편저 (1989). 『살림의 경제학』. 박기형 옮김(2010). 주영사. *Biblical Principles and Economics: The Foundations*. USA.
- 한국선교연구원 (2011). 『20세기와 21세기 세계 선교 상황』. 한국선교연구원 내부자료(과발마).
- 한국인터넷서브 (2011). 『총체적 선교』. 한국인터넷서브 자료실.
- _____ . 『BaM의 정의』. 한국인터넷서브 자료실.
- 황희영 (2009). “성경적 경제학의 재구축을 위한 인식체계의 탐색.” 『신앙과 학문』. 기독교학문연구회. 14(1), 261-297.
- Boone, P. (1994). “The Impact of Foreign Aid on Savings and Growth.” *London School of Economics. mimeo*.
- Boone, P. (1996). “Politics and the Effectiveness of Foreign Aid.” *European Economic Review*. 40. 289-329.
- Burnside, C. and D. Dollar (2000). “Aid, Policies, and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90. 847-868.
- Clemens, M., S. Radelet and R. Bhavnani (2004). “Counting Chickens When They Hatch: The Short-Term of Aid on Growth.”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Working Papers*. 44.
- Dalgaard, C., H. Hansen and F. Tarp (2004). “On the Empirics of Foreign Aid and Growth.” *Economic Journal*. 114. F191-F216.
- Domar, E. D. (1946). “Capital Expansion, Rate of Growth, and Employment.” *Econometrica. Journal of the Econometric Society*. 137-147.
- Dowling JR, J. M. and U. Hiemenz (1983). “Aid, savings, and growth in the Asian Region.” *The Developing Economies*. 21. 3-13.
- Feyzioglu, T., V. Swaroop and M. Zhu (1998). “A Panel Data Analysis of the Fungibility of Foreign Aid.”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12. 29.
- Gulati, U. C. (1978). “Effect of Capital Imports on Savings and Growth in Less Developed Countries.” *Economic Inquiry*. 16. 563-569.
- Gupta, K. L. and M. A. Islam (1983). *Foreign Capital, Savings, and Growth: an*

- International Cross-Section Study*. Dordrecht.
- Hansen, H. and F. Tarp (2000). "Aid Effectiveness Disputed."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12. 375-398.
- Hansen, H. and F. Tarp (2001). "Aid and Growth Regression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64. 547-570.
- Lensink, R. and H. White (2001). "Are There Negative Returns to Aid?."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37. 42-65.
- Levy, V. (1988). "Aid and growth in sub-Saharan Africa: the Recent Experience." *European Economic Review*. 32. 1777-1795.
- Luzbetak, L. J. (1995). *The Church and Cultures*. New York: Orbis Books.
- Mandryk, J. (2010). *Operation World: The Definitive prayer Guide to Every Nation*. 7th Ed. Biblica Publishing. USA
- Mosley, P. (1980). "Aid, Savings and Growth Revisited."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42. 79-95.
- Mosley, P., J. Hudson and S. Horrell (1987). "Aid, the Public Sector and the Market in Less Developed Countries." *The Economic Journal*. 97. 616-641.
- Myers, B. (1999). *Walking with the Poor: Principles and Practices of Transformational Development*. 장훈태 역 (2000). 『가난한 자와 함께 하는 선교: 변화발전의 원리와 실제』.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OECD (2001). *The DAC Guidelines Poverty Reduction*. OECD
- Pack, H. and J. R. Pack (1993). Foreign aid and the Question of Fungibility.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258-265.
- Papanek, G. F. (1972). "The effect of Aid and Other Resource Transfers on Savings and Growth in Less Developed Countries." *The Economic Journal*. 82. 934-950.
- Rostow, W. W. (1956). "The Take-off into Self-sustained Growth." *The Economic Journal*. 66. 25-48.
- Singh, R. D. (1985). "State Intervention, Foreign Economic Aid, Savings and Growth in LDCs: Some Recent Evidence." *Kyklos*. 38. 216-232.
- Wagner, C. P. (1971). *Frontiers in Missionary Strategy*. Chicago: Moody Press.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ODA위원회(DAC). www.oecd.org/dac
- 통합선교연구소. www.ibcd.net
- 한국문서선교원. www.krim.org
- 한국인터서브. www.intersk.org

〈부표1〉 OECD DAC 회원국의 ODA 공여 현황(2010년)

순위	국가명	총액(백만달러)	순위	국가명	GNI대비(%)
1	미 국	30,353	1	노르웨이	1.10
2	영 국	13,053	2	룩셈부르크	1.05
3	독 일	12,985	3	스웨덴	0.97
4	프랑스	12,915	4	덴마크	0.91
5	일 본	11,054	5	네덜란드	0.81
6	네덜란드	6,357	6	벨기에	0.64
7	스페인	5,949	7	영 국	0.57
8	캐나다	5,202	8	핀란드	0.55
9	노르웨이	4,580	9	아일랜드	0.52
10	스웨덴	4,533	10	프랑스	0.50
11	호 주	3,826	11	스페인	0.43
12	벨기에	3,004	12	스위스	0.40
13	이탈리아	2,996	13	독 일	0.39
14	덴마크	2,871	14	캐나다	0.34
15	스위스	2,300	15	호 주	0.32
16	핀란드	1,333	16	오스트리아	0.32
17	오스트리아	1,208	17	포르투갈	0.29
18	대한민국	1,174	18	뉴질랜드	0.26
19	아일랜드	895	19	미 국	0.21
20	포르투갈	649	20	일 본	0.20
21	그리스	508	21	그리스	0.17
22	룩셈부르크	403	22	이탈리아	0.15
23	뉴질랜드	342	23	대한민국	0.12
합 계*		128,490	단순평균		0.49

주1) 경상가계 기준

주2)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DAC 비회원국은 11개 국가이며 칠레와 멕시코를 제외한 9개 비회원국들의 ODA 총액은 20억 700만 달러 수준이며 터키가 9억 6,700만달러로 비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ODA하였다.

자료 : OECD, DAC

ABSTRACT

Analysis of ODA Effect on Economic Growth of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Its Implications for Mission Strategies

Hee Yeon Kim(Seoul National University)

Tae Hwang Kim(Myongji University)

The amount of ODA to reduce the poverty in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has been increased for the last 50 years, while the ratio of (ODA amount)/GNI in the grant countries has been overall decreased to 2000 and has reversed to the increasing trend after setting up the Millenium Development Goal(2000). Even though the microeconomic effect of ODA is strongly positive, its macro effect would be insignificant. The reason is that the procedure and the goal of ODA could be different in the short term or long term, and that the socio-economic demands could be also different according to the income level in the grant countries.

For example, in the lower-mid income countries, the economic effect of ODA revealed insignificant. The mission in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should be promoted with distinct strategies corresponding to the socio-economic conditions in the local countries. It should be more efficient to link the mission to the ODA in the recipient country. Recently the traditional mission activities(ex. opening new church, bible study, discipleship training, etc) tend to be integral mission. For example, the professional mission bases in the education, health and sanitation or engineering would be set up with the inclusive assistance system including ODA. In this context, the aim of the paper is to analyse the inter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ssistance system and its sustainable effect, and to research the strategic implications from recent mission in the developing countries.

Key Words: ODA, ODA effect, mission strategies, integral mission

